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쉼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 곳 찾았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휴가를 떠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긴장마저 풀어져 세상을 누리 기 위한 자유인이 되기 쉽습니다. 더위, 피곤, 안일한 생각에 지배당할 채 십자가와 복음보다는 쉼을 방한 욕심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들게 됩니다(제 14:11).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마 6:31)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쉼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쉼과 게으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잠을 자면서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한가롭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과 게으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게으름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보혈의 은총을 입은 신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잠 19:15).

따라서 올 여름에는 게으름이 없는 쉼을 안에서 참 쉼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수 11:28,29). 휴가지에 가실 때 먹고 즐기 위한 용품만 챙기지 마시고, 성경과 찬송가 테이프를 챙겨 가십시오. 복음이나 사도행전 등 한 권의 성경을 정하여 휴가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쉼을 누리십시오. 차 안에서 오고 가실 때 세상 노래가 아닌 찬송이 가득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금요집회 찬양 모음곡이 2절까지 보급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구입하여 들으시거나 “할렐루야” 연습 테이프를 들으며 찬송이 주는 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구 입문의/ 사무곡).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느 1:28).

8월 교회 일정

- | | |
|---------|--|
| 9일(수)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수요 2부 예배)
정기당회(수요 2부 예배 후) |
| 10일(목) | 중동 1·2부 수련회(11월까지) |
| 14일(월) | 중동 3부 수련회(15월까지) |
| 16일(수) | 교회 주년 총력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
| 27일(주일) | 제4차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시) |

“오늘 주일 예배 시, 수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수해 구제연금’이 있습니다.
일몰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집회)

의롭다 그리고 거룩하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다. 십자가는 모든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것과 현재의 삶을 통치해 주는 “거룩한 삶”에 근거가 된다.

십자가는 “의롭다 하심”의 근거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담보가 필요함을 성경에서는 말해 준다. 우리는 모두가 양과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피조물이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면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 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벧전 2:24). 그리고 우리를 의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진실한 은혜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멸망이 단 한 번의 타락 사건 때문인 것처럼, 인간은 골고다에 있었던 “의의 한 행동”을 담보로 타락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고(골 5:18).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한 행동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던 경건한 삶의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단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말한다. 피조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의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것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 죄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한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죄와 속죄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자는 당신의 죽음의 형벌을 감수하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사신 죄 소생함을 받을 수 있게 한다(히 9:22).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의 권세를 취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없애 할 수가 있다(히 2:14).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이다. 이 구원의 논증에 비추어 볼 때에 믿음이란 어떠한 다른 형태의 교만한 본론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토록 비방을 받는 피의 신학만이 구원의 진정한 반석으로 남아 있다(고전 2:2).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표적이거나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의 산돌이 된다(벧전 2:4,6).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혼함과 패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게 하도록 지명을 받은 것이다(고후 2:15,16; 고전 1:23).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는 의롭게 되는 진리요 능력이요 능동하신 자의 지혜이다(골 15:8; 고

전 1:24,18). 구약에서도 죄와 죄 사함을 받음이 있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고후 5:21).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으로 이 속죄의 진리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 바울에 의하여 이 속죄의 말씀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가리켜 “대속물”이라고 언급하셨다(마 20:28). 대속물에 쓰여진 “대(代)”는 곧 “대신한 다”는 뜻으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와 쓰여진 것이 같은 말이다(창 22:13).

십자가는 “거룩함”의 근거

우리가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은 법적인 면에서 볼 때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면제시켜 주시어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까지 가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골 6:5).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사는 한 알의 밀알들이다(요 12:24,25).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다. 또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죽은 것이다(갈 6:14).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세상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골 6:6,11). 우리 밑에 있는 세상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정복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창세기 3:15의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것이다(골 2:15).

우리 위에 있는 세상은 우리를 위한 은혜와 축복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갈 3:13).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항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셨다(골 2:14). 따라서 율법은 십자가를 향하여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고 죽임을 당하여야 할 사람도 그를 정죄하는 자의 권세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율법을 향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체험하는 것이다(골 6:7~9).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이 된 것이다(롬 7:4).

UNSHAKEABLE FOUNDATION

(10)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was given to me, as a wise master builder I laid a foundation, and another is building upon it. But let each man be careful how he builds upon it. (11) For no man can lay a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 (16)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1 Corinthians 3:10~16)

Today's Bible passage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an unshakeable foundation. What kind of foundation do you have? Is it shaky or steady? In this 21st century, I have heard news of so many shakeable foundations, like the Twin Towers in New York, the droughts and in Africa, earthquakes in Pakistan, tsunami in India, war in Iraq, and the hurricane that ruined thousands of homes in Louisiana and Mississippi. The media frequently reports on worldwide business failures, families falling apart, nations under attack, government leaders falling down, and devastating diseases. There is so much destruction; even our own bodies are breaking down. So many people and places are unstable.

Human beings lay some kind of foundation upon which they build their lives. Most people are very proud of their work, and like to show others what they have accomplished. As a Christian,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v. 16)? Do you realize what that means? Do you know whether your foundation is stable or unstable?

A foundation based on the love of Jesus Christ is unshakeable. 1 John 4:8 says, "The 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 Christians could not know how to love, nor be able to love God if God had not first loved us,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1 Jn. 4:10). The Lord's love is so powerful and firm. He says,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erefor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kindness"(Jer. 31:3). Nothing is stronger or more durable than the love of Jesus Christ,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Jesus knowing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w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Jn. 13:1). His love was, is, and will always be unshakeable.

The wrath and judgment of Jesus Christ is unshakeable. Romans 2:2&3 says, "And we know that the judgment of God rightly falls upon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But do you suppose this, O man, when you pass judgment on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and do the same yourself, that you will escape the judgment of God?" You have to understand and believe that the Lord's judgment includes His love and His righteousness. The cross itself was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re was love and righteousness there. Romans 2:4 says, "Or do you think lightly of the riches of His kindness and tolerance and patience, not knowing that the kindness of God leads you to repentance?" Please do not take the Lord's kindness and love for granted,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and who is able to stand"(Rev. 6:17)? The Bible clearly says,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Jn. 3:36). The Lord's anger and judgment are sure and unchanging, and therefore, unshakeable.

Jesus Christ's promises are unshakeable. Your promises are tentative at best, but the Lord's are always certain,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d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1 Cor. 15:58).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yes and forever! His word is settled in heaven (Ps. 119:89). Isaiah 40:7&8 say,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when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upon it; surely the people are grass.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His promises are truly dependable and unshakeable.

The Lord God is eternal, and everything of His is unshakeable, including His grace, but His offer of grace is not forever. Psalm 33:12 say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whom He has chosen for His own inheritance." Those nations who do not choose the Lord God will receive punishment, "The wicked will return to Sheol, even all the nations who forget God"(Ps. 9:17). God speaks to the nations and to the church, "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deeds you did at first; or else I am coming to you, and will remove your lampstand out of its place-unless you repent"(Rev. 2:5). Jesus also says to the church, "I know your deeds,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Wake-up, and strengthen the things that remain, which were about to die; for I have not found your deeds completed in the sight of My God"(Rev. 3:1&2). The Lord also calls individuals, like you and I. He told Hosea, "Ephraim is joined to idols; let him alone"(Hos. 4:17). The Bible tells us about Esau, "For you know that even afterwards, when he desired to inherit the blessing, he was rejected, for he found no place for repentance, though he sought for it with tears"(Heb. 12:17). God is calling the nations, church, and individuals to come to Him. Please do not lose the opportunity.

My dear friend, right now you are living and building a life. Please build your life upon an unshakeable foundation. The Bible gives us only one master plan to this unshakeable foundation, which is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Christ. When the Lord leads you, please do not put in your own opinion, but just follow and obey. Amen. 

다음 주일 설교

흔들리지 않는 터

- ⁽¹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¹¹⁾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
⁽¹⁶⁾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10~16)



김성관 목사

오늘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터는 어떻습니까? 부실하거나 아니면 견고합니까? 21세기 들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 아프리카의 살인적인 가뭄, 파키스탄의 지진, 인도의 쓰나미, 이라크의 전쟁, 그리고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남긴 채 루지애나와 미시시피주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에 이르기까지 기초가 흔들리듯 흔들리는 것 같은 사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매스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도산, 붕괴되는 가정들, 교전 중인 국가들, 무너지고 있는 정치권, 절망적인 질병들에 대한 뉴스들을 실 세 없이 쏟아 놓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의 육신조차 무너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터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이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16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터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8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애초부터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렐 31:3).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끈질긴 것은 없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 역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2,3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자제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로마서 2:4은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음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계 6:17).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확실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들은 늘 임시적이지만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시 119:89). 이사야 40:7,8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주님의 약속들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은총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총으로의 초대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33:12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나라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시 9:17). 하나님은 열방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디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가운데서 옮기리라”(계 2:5). 예수님 또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계 3:1,2). 하나님은 또한 각 사람, 곧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호 4:17). 성경은 에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2:17). 하나님은 나라와 교회, 개인을 향해 주님께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터에 대해 단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자신의 뜻과 주장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70인의 사역 (눅 10:1~20)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다(눅 9:1,2).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에 해답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다(눅 9:7-9). 계속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오방미인의 기적이 있었으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었다(눅 9:20).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눅 9:23).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신 뒤,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다(눅 9:28,42). 오직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만을 원하였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성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62)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70인의 일꾼을 세우셨다.

선교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전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들켜 앞서 보내시며"(눅 10:1).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사상은 자신의 실력을 믿는 교만한 자가 아니었다. 38년 된 병자, 거러사 광인, 수감성 여인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믿고 싶다가 예수님은 진심으로 전설로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택하신 일꾼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마! 보내신다 믿음의 일꾼을 세워 보내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보내셨다. "후수 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눅 10:2). 주님의 일꾼은 추수할 곡식을 보는 자들이다.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다 필요해서이다. 이사가 선지자는 성령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에 선지자는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이 고백이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나) 1:3처럼 자신의 계획, 생각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준비하라! 보내신다 70인을 향해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이라고 하셨다(눅 10:3).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고 준비시켜 보내셨다. 어떤 준비인가? 바로 "믿음"이다. 선교에 필요한 세상적인 준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눅 10:4,5).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전할 때 그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있었고, 모든 일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인도하셨다(행 20:3). 이처럼 우리의 선교에도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사람과 경험, 철저한 준비를 의지하지 말자. 선교는 우리의 철저한 준비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이 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준비가 거기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눅 10:5-8). 선교지에서 당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평안만을 구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선교지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행 3:6). 70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특별한 훈련은 없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보낸 것뿐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이때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빌 4:6,7).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인도에 감사하는 일이다(골 3:15).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영의 눈을 떠서 보라.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라 예수님께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일꾼들은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눅 10:9).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었기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눅 10:17). 이에 예수님도 대답하셨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 이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70명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별로 없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하는 우리도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드러나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승리가 된다(요일 5:4,5).

저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려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리라"(눅 10:10,11,16).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열매를 맺는다 70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과 열매를 맺는 기쁨은 달랐다. 예수님은 70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 10:20).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천지의 주재 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이렇듯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눅 10:21). 선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했느냐가 선교를 마친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가는 데 있다(골 2:15).

"믿음이 이기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찬 387장). 우리는 단기선교를 통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재 보고 있다. 현재까지 8,000여 명의 단기선교사 파송이라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은총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던 된다(고전 2:2). 적인 중에 괴수를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딤후 1:15). 기도하며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다. 선교를 위한 다른 준비보다 가장 먼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자. 이때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루어지며 열매가 맺힌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 아멘.

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의 모습은 평일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요 2부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말씀과 찬양이 주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요일에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교회로 달려 나온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는 말씀대로 충현의 짧은 중년 인턴 고등부 학생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년들도 하기 힘든 주일 성수, 선교, 전도, 자원 봉사까지 이들은 가까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다(딤후 2:15).

특별히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젊은 중년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의 믿음은 더욱 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기에 80여 명의 선생님들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분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하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지며, 십자가를 위한 의지와 고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고등부가 더욱 복을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이며 복음 안에서 한가 되었고 기가 부어났습니다. 고등부는 교회의 또 표지에 발맞추어 전설로 회개하는 천국 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천국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벽 이슬 같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현한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온 교회 성도님들의 귀담이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일꾼으로 양성되는 십자가의 증인들, 고등부



구재완 (성로, 고등부장)

이 고등부 예배는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젊은 십자가의 증인들은 천국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 후에 각 반별로 출어져 성경을 배우며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바, 또한 여력이 되는데로 복음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와 함께 드리는 주일 5부 예배(오후 3시)와 찬양 예배(오후 5시)까지 마치며 하루의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느 고등학생들이라면 쉬거나 밀린 공부를 하느라 부주의 하우셨을 텐데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믿기에 이들

망팔까지

십자가를 전하는 중현의 청소년들

중등 1부 3팀

◆ 처음에는 선교 준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역에 가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 한 영혼에게라도 귀하고 건지하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전태준)

◆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그곳의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구하겠다.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더 불쌍한 마음이 든다. (최재필)

◆ 처음 선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배성안)

◆ 지난 겨울에 선교를 갔다 와서 이번에는 현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훈련을 하면서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를 많이 했다. 이번 선교 준비를 통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셨고 내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뜻에 그 순종만 하면 된다. (노예원)

◆ 선교를 준비하면서 믿든 점도 많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성민)

◆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최약인 것을 깨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망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이경아)

◆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이 언어 준비와 영혼 훈련을 하면서 기쁘고 부끄러웠습니다. 선교지에서뿐만이 아닌 내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임민선)

고등부 9팀

◆ 선교지에 떠나려 하니 저의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임지혜)

◆ 선교 훈련을 받으며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주창하시어 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김지수)

◆ 저희들이 준비하고 가는 선교이지만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임진아)

◆ 나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민정)

◆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최민영)



*내일(7월 31일)부터 토요일(8월 5일)까지 대부분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구성원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또한 교구 선교팀도 많이 출발합니다.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십자가를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한 기 금식과 더욱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만을 회개하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그 동안 두 번이나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저의 잘못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있는 이

비록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더욱 간절히 말씀 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저의 지식과 경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선교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최윤현(중등 2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4팀	전은배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5팀	양한원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6팀	정재영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1부 7팀	김기태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3팀	김규식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4팀	최영실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5팀	정진근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6팀	한홍연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7팀	배종락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8팀	장기락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2부 9팀	김남희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3부 9팀	심희민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3부 10팀	한 숙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중등3부 11팀	김동철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8팀	박민호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9팀	전진국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10팀	이창희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11팀	윤해균
7월 31일(월) - 8월 5일(토)	고등부 14팀	송승길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청년1부 3팀	송한현
7월 31일(월) - 8월 5일(토)	사랑부 1팀	조영철
7월 31일(월) - 8월 5일(토)	6교구 3지역	이병두
7월 31일(월) - 8월 5일(토)	8교구 8지역	남용승
7월 31일(월) - 8월 5일(토)	7교구 5지역	윤병식
7월 31일(월) - 8월 5일(토)	13교구 4지역	임채봉
7월 31일(월) - 8월 5일(토)	13교구 6지역	강진택
8월 1일(화) - 8월 8일(화)	3교구 3지역	최준수
8월 1일(화) - 8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정원근
8월 1일(화) - 8월 8일(화)	14교구 6지역	박종용
8월 1일(화) - 8월 10일(목)	5교구 1지역	김윤환
8월 2일(수) - 8월 9일(수)	에바다부 2팀	변창대
8월 2일(수) - 8월 9일(수)	2교구 4지역	유병수
8월 3일(목) - 8월 12일(토)	7교구 3지역	박용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4일(월) - 8월 1일(화)	9교구 5지역	동방윤문
7월 24일(월) - 8월 1일(화)	외선부 2팀	조영구
7월 24일(월) - 8월 1일(화)	4교구 7지역	최민석
7월 24일(월) - 8월 1일(화)	16교구 8지역	김치호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교구 1지역	최세진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6교구 1지역	김성수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7교구 2지역	유재훈
7월 25일(화) - 8월 1일(화)	8교구 2지역	염복섭
7월 25일(화) - 8월 1일(화)	17교구 4지역	이창우
7월 25일(화) - 8월 2일(수)	9교구 7지역	김인태
7월 25일(화) - 8월 2일(수)	10교구 6지역	김만호
7월 25일(화) - 8월 3일(목)	10교구 2지역	정원환
7월 26일(수) - 8월 4일(금)	4교구 11지역	이희우
7월 26일(수) - 8월 4일(금)	15교구 1지역	강석화
7월 26일(수) - 8월 5일(토)	8교구 1지역	김철남
7월 27일(목) - 8월 4일(금)	18교구 4지역	김홍기
7월 27일(목) - 8월 4일(금)	11교구 7지역	박찬서
7월 29일(토) - 8월 4일(금)	함평루아찬양대	문경안
7월 29일(토) - 8월 5일(토)	청년2부 1팀	강전석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여름 계절학교

정말로 소중한 시간

십자가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참사랑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3살 된 예지는 분주한 몸놀림으로 엄마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게 하고 성경학교에 준비된 여러 활동으로 친구들과 나누며 사랑을 알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 계속되는 신앙 생활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늘의 복음을 바로 알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말씀과 기도에서 먼저 서 있어야 함을 많이 느꼈고 예지 아빠와 언니, 예지가 함께 천국 일꾼으로 자라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신영 집사(주예지 엄마, 유아부)



십자가 사랑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피곤함, 그 가운데서 또 매년 있는 수련회에 가야 된다는 것은 은혜보다는 오히려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마음으로 출발한 수련회, 평일에 직장일로 주말엔 청년부 집회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 있을 텐데도 많은 자제들이 예배당 안에 빠꼭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저의 심령을 아르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 십자가에는 피와 고통,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 동안 이 부분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손과 고통, 희생을 팔미안은 치열한 사랑은 뒤로 한 채 늘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만으로 제 삶을 포장해 버렸습니다. 어찌된 건이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을 행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미사여구로 주님의 사랑을 왜곡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없이 죄스러워서 기도 시간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 속에 주님이 고통을 감내하며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첫날을 보내면서 몸은 조금 피로했지만 눈물 범벅인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는 지체들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제 과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공동체 안에 제가 이렇게 속에 있고, 삶에 지쳐 힘들 때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련회 때만 반박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눅 9:23).

이원희(청년 1부)

예수님 안녕하세요?

가은이, 가영이에요. 어제제랑 오늘이랑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왔어요. 말씀도 많이 듣고, 퀴즈도 풀고, 만들기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해서 참 즐거웠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마음엔 마음, 거짓말, 욕심 같은 나쁜 생각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피로 나쁜 마음을 없애 주시고 사랑, 겸손, 온유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사랑할래요. 친구들에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줄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래요. 예수님이 도와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전가은 · 가영(유치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이번 수련회 때는 "십자가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참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우리는 새로 나온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이를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많은 순서들이 있었지만, 역시 말씀은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마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더욱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박병민(중동 1반, 에바디부)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중에 정년 1부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1박 2일 예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주일 찬양예배 후 세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기도원으로 향하였다. 도착 후 첫 예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 6:1-3)라는 주제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간음과 교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호 5:15), "저희가 그 죄를 뒤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먹는 것, 떡, 술, 기름, 물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배만 채우며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어지는 기도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신임과 성도님 한 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성도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자신을 위한 수련회인 것 같다"면서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렸다. 이처럼 이번 수련회는 정맛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젖는 시간이었다고 정년 1부 모든 회원들이 입을 모았다.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끝..."

이정희(집사, 정년 1부)



교회 탐방 찬양위원회

“영원히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리”

왕의 왕, 주의 주를 향해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의 찬양



성숙한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의해 피조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인이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는 “할렐루야” 속에 담겨 있는 은혜와 온전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찬양의 줄을 만났습니다.



합니다. 또한 악보 22~32마디에 보면 각 파트별로 “할렐루야”가 교차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종음 주조이 자연스러운 채 찬양해야 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12마디)는 선조하듯이 크고 장엄하게 해야 합니다. (김영구 안수집사)

“할렐루야”는 어떤 곡인가?

현대의 메시야 52곡 가운데 42번째 곡으로서 부활과 영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모차르트에 의해 최종 편곡된 것입니다. (김영구 안수집사, 찬양감독)

처음에 세속적인 성애를 관습으로 가지고 오페라 작곡에 힘을 쏟았던 헨델은 그 심해에 봉착합니다. 이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찬양은 영생을 관습으로 관습이 됩니다. 은혜의 눈물과 간격 속에서 식음을 간행하시라 하며 24일 만에 이 대공을 완성하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서조성 안수집사, 전임지휘자)

현재 우리가 찬양하는 “할렐루야”는 원조(라장조, D major)보다 3도 낮게(내림 나장조, B major) 조옮김(이조, transposition)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 드리기 용이해졌습니다. (김원성 집사, 전임지휘자)

“할렐루야”와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

“거룩한 성”과 “거룩한 반” 그리고 “할렐루야”까지 저에게는 진짜 은혜의 연속입니다. 이 찬양에 집중한 뒤로 항상 호흡할 때마다 천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조성 안수집사, 베이스)

처음에는 일반적이 찬양보다는 더 웅장한 찬양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두면서 천국에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의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전덕란 집사, 메소)

예전 “할렐루야”를 할 때는 음악적으로 완벽하고 웅장한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음악적인 감동보다 더 깊어서도 개성 있는 “참 기쁨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마치 제가 온 승리를 거두고 깨어난 사람 같은 은혜가 느껴집니다. (김영구 안수집사, 지휘)

연주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제 안에서 샘솟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장연희 집사, 바이올린)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능한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이 다스림” 부분을 부를 때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의 바다에 빠집니다. (김영구 집사, 베이스)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연스러운 울음입니다. 각 파트의 소리가 단순히 파트의 소리라 아니라 여기 저기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찬마노로 들립니다. (김원성 집사, 테너)

찬양을 할 때마다 “간단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 말씀처럼 계시록 19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참된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한없는 자유, 감사,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소연 집사, 소프라노)

“할렐루야”와 각 파트별 특징과 찬양할 때 유의할 점?

서로 대화할 때 주고받듯이 노래해 맞추어 연주해야 합니다. (조연희 집사)

반주할 때 갑자기 빨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악보에만 매달려 보면 제대로 반주를 못합니다. 가사를 같이 묵상한 뒤 함께 노래하면서 반주를 해야 합니다. (김영구 집사)

악보를 보면 14~16마디의 “할렐루야”와 같이 모든 파트에서 함께 찬양하는 부분(부분만 “영원히”)은 무조건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곡 시작에서 점점 크게 찬양하면서 완성을 느끼며 연주해야

합니다. (김영구 안수집사)

소프라노(S) 파트는 가장 중요한 선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보 51마디부터 68마디까지 찬양이 절정으로 가면서 소프라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연습과 호흡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김소연 집사)

메소(A) 파트는 악보 23마디의 박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할 때 박자를 서서히 아끼고 다른 파트(소프라노)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덕란 집사)

테너(T) 파트는 전문용어로 멜로디와 함께 내성부(次聲部)입니다. 따라서 전체 찬양을 이루는데 중요한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밝고 힘차게 하되 특히 악보 22마디부터 주위에서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김원성 집사)

베이스(B) 파트는 소프라노와 함께 외성부(外聲部)입니다. 찬양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라”(4마디) 부분은 베이스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악보 24~32마디 부분에서 서실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연습하십시오. (서조성 안수집사)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께!

절대 연습을 할 때만 “할렐루야” CD를 집어서 듣는데 어느 새 저의 아이들이 제가 맡고 있는 멜로디 파트를 따라다니니 이제는 저와 함께 멜로디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전덕란 집사)

언젠가 성전에서 “할렐루야”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때 저는 정말로 무언가 딱 들어맞아 하 나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부처이든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구 집사)

본명이 음악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교인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천국이 지 않게 기쁨을 얻습니다. (김원성 집사)

제가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금요일마다 성도들 앞에서 하는 “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집사)

아직도 자신의 파트를 맡아서 못하신 분은 지금 곧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가끔씩 남자들은 베이스, 여자들은 소프라노로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서조성 안수집사)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해 볼 때 이 찬양은 보혈의 은사를 믿은 성도라면 당연히 찬양해야 할 의무감이 생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찬양”으로 생각할 때 어렵고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어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속에 담긴 은혜 안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김영구 안수집사)

일부 성도님들은 “할렐루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력(세력)을 바라보십시오. 만군의 주, 만유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 참성도의 모습! 그 성도가 자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에서로 하겠다”가 아니라 “아래로 더욱 연습해야겠다”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담겨 있는 “할렐루야”를 준비하며 은총으로 풍성할 크리스마스를 함께 맞기를 원합니다. (편진실)

*성도님들의 찬양 연습을 돕기 위해서 테이프와 CD를 제작하여 각 구역별로 보급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 · 가 · 곡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108	박재일	1 청년1부		2115	이연기	12 청년1부	김국재(12)	2122	이연숙	19 청년1부	왕성현(19)	2129	조종필	1 청년1부	김영환(19)	2136	이서희	6	2143	한 진(18)						
2109	신재일	1 청년1부		2116	김은우	12 청년1부	김국재(12)	2123	김종근	19 청년1부	한용환(19)	2130	김종필	19	대학부	이해학(14)	2137	지덕도	19	외선부	장재홍(3)	2144	정재식	19	청년1부	김영환(3)
2110	김미영	19 청년1부	김영환(19)	2117	이영희	6 청년2부	이진규(6)	2124	정미선	6 청년2부	박문선(17)	2131	김소희	19	외선부	박지영(19)	2138	지미라	19	외선부	장재홍(3)	2145	도준수	4	청년2부	
2111	김성수	19 청년1부	김영환(19)	2118	김영미	19 청년1부	이수진(19)	2125	김은진	18 청년2부	이영환(17)	2132	신지나	19	외선부		2139	박지나	19	외선부						
2112	김종관	15 청년1부	김소현(15)	2119	김영희	19 청년1부	이수진(19)	2126	이영희	8 청년1부	이진규(8)	2133	이소희	19	외선부		2140	신지나	19	외선부						
2113	홍우표	15 청년2부	김소현(15)	2120	이영숙	19 청년1부		2127	박영희	10 청년2부	구정현(10)	2134	래미	19	외선부		2141	서희희	8	청년2부	임영숙(11)					
2114	송숙자	15 청년2부	김소현(15)	2121	이승기	17 청년1부	이진규(17)	2128	오연진	19 청년1부	왕성현(19)	2135	차 준	19	외선부	정재홍(3)	2142	서희희	19	대학부	나승연(4)					

교회소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회의
일시: 30일(오늘) 15:00
장소: 감리리홀

별 세

1. 유원규 타교 은퇴권사(안재선 집사의 모친, 전동여 집사의 시모, 4교구 서초2구역) / 22일 별세, 24일 장례
2. 박복덕 씨(변명화 성도의 모친, 9교구 이문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결혼

1. 남상헌 군(남용희 씨, 이종자 씨의 아들)과 김비로 양(김일중 집사, 조운숙 권사의 딸, 4교구) / 8월 5일(토) 14:00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02)2123-4761

◆ 전도위원회 회계 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7월 2일(주일)~7월 30일(오늘)

대상 기간 : 2006년 1월~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시산표 1부(2006년 1월~6월)

교회직원 모집

- | | |
|-----------|---|
| 1. 모집 부문 | 경비직 |
| 2. 자 격 | 세세 교인 |
| 3. 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
| 4. 서류 제출처 |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8200(4선 403) |

충현복지관 직원 모집

1. **모임 부문** 이도웅·유정창 1명
2. **자문 자역** 새해 고인교로 특수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자격 취득자,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신재치 및 발달장애 아동교육 경험 5년 이상인 자; 경력에 따라 지급 부예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주인등록 증명·자기 소개서
4. **제출 마감** 2009년 8월 8일(화) 오후 5:00
5. **서류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401)
북지관 총무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3
☎ 564-4885(☎ 106)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8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요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I	II
8	6	김승곤	차신득	김단준	임창식	이계인	이세영	권경희	임무천
	13	박용근	원옥철	전계식	김진국	서영식	정원근	전순소	김영술
	20	최운덕	조종환	정경길	김순철	전학래	조종민	이성호	김일식
	27	권명옥	정선진	장두태	김준선	박태양	안성철	김영철	최길성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7/31(월)	8/1(화)	8/2(수)	8/3(목)	8/4(금)	8/5(토)	8/6(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권명옥	김준희/김향진	최종철/안세현	이정훈/김상열	김태석/김재호	김익환/윤인숙	김영훈/한영준

예배담당 안내 (8/2-8/6)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8/2	수요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막 10:17-31) 김준희 목사	이정선	이경현	너 시온아 이 소곡 전파하라 (호산나 찬양대)
8/2	수요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막 10:17-31) 김준희 목사	이정선	김경명	주 하나님께서는 (시로암 찬양대)
8/4	금요일	양재흥 목사	김영훈		1교구 / 소프라노 김희숙
8/6	주일 I	흔들리지 않는 네 (고전 3:10-16) 최홍철 목사	황진성	김승곤	(예배 전 찬양)
8/6	주일 II	흔들리지 않는 네 (고전 3:10-16) 정현민 목사	윤수일	차진동	예수 십자가에 홀로 피로써와 / 영 / 멜로 노희영(영광교회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8/6	주일 III	흔들리지 않는 네 (고전 3:10-16) 정현민 목사	정진호	김관용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 영 / 멜로 이경원(천주교 호산나 찬양대)
8/6	주일 IV	흔들리지 않는 네 (고전 3:10-16) 이복자 목사	장종진	임광성	아! 하나님의 / 아! 영이 세상중생하는 (조지 찬양대)
8/6	주일 V	흔들리지 않는 네 (고전 3:10-16) 이복자 목사	이정훈	이재민	주인 예수님을 찬미 들리고 / 영 / 멜로 홍성찬(천주교 호산나 찬양대)
8/6	주일 찬양	메소드와 아델 (사 52:3-31) 이희희 목사	강 준	이세영	핸드벨 찬양 / 합창대가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악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전 8: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회	자녁 11:00	금요일회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어,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스리랑카, 러시아, 몽골어, 라씨어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또는 통시어 통시어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velyn O'Clar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pa O'Clark Worship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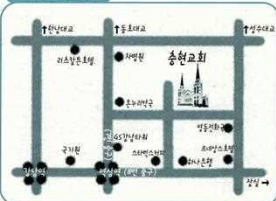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녀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중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랑부	오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일) 오전 1:00(장년)	제2교육관 1층
타이부	(주) 오전 8:30~9:40 (일) 오전 7:30~9:30	교육관 110호
생각자랑부	오후 12:15	교육관 110호
총헌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국선제인교교육	주간교육	총헌총회관
전체신학교교무부	오후 11:00	아멘 홀

7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국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권함을 주소서.
- ② 총련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를 주소서.
- ⑤ 여러 성경학도 및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사를 교회하고 위대하게 내리려 주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 ⑦ 시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련복지재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회화에 속한 재단(유지·통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이정우	김종호	노준형	이명환
남선우	김종구	노준호	이명환
남선우	김종구	최기정	이장
김광남	이훈식	임현진	전홍
이정우	김진훈	한기정	정기
원윤석	이형수	한기정	정기
홍우덕	이계인	박익우	이태
박용규	권명호	조준환	배순
이성호	정희우	노준형	박철
신상수	고재승	강정철	김영
정철환	김승곤	함정국	윤석
이근현	김연근	김정국	김종
김은철	전학덕	김정국	전계
정종수	전은배	서정석	구재
최자용	신성진	유상태	박상
신광철		박정환	

■ 부목사

이종대 2.2주	정현민 2.2주	박인기 2.2주	류병희 1.2주	김영호 1.2주
이극근 1.2주	안창덕 1.2주	나광영 1.2주	정진호 1.2주	고광환 1.2주
유근량 1.2주	이광환 1.2주	장 준 1.2주	일현덕 1.2주	이희식 1.2주
최종철 1.2주	하종철 1.2주	안치원 1.2주	정승준 1.2주	양재홍 1.2주
이성진 1.2주	최소구 1.2주	이재영 1.2주	이건준 1.2주	이광수 1.2주
김준희 1.2주	윤수진 1.2주	황진섭 1.2주	이정훈 1.2주	김태석 1.2주
유재진 1.2주	강명구 1.2주	전성원 1.2주	김철규 1.2주	

■ 연전도사

윤진희 1.2주	한영준 1.2주	김현식 1.2주	홍순애 1.2주	이옥주 1.2주
김갑자 1.2주	안소윤 1.2주	김정연 1.2주	강덕희 1.2주	최문실 1.2주
전은희 1.2주	김경자 1.2주	김경희 1.2주	이복순A 1.2주	류준희 1.2주
한성인 1.2주	임태구 1.2주	강영미 1.2주	옥미자 1.2주	이복순B 1.2주
강호수 1.2주	전희희 1.2주	이혜숙 1.2주		

■ 찬양감독 강인구

■ 찬양지휘자 서운성

■ 찬양감독자 김소연

■ 선교사 유은하

■ 찬양전주자 장연희

■ 언젠드

윤인숙	한영준	김연석	홍승배	이우주
김팔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철	최문실
전은희	김정자	김경희	이복순A	류진희
한성임	임태주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영희	이혜숙		

■ 찬임강독 강인구
■ 전임지휘자 서운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선교사 송요한